# 광주에서 국내 최대 AI 기술 전시회

### 9월 28~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
### AI기반 융합산업·신기술 선보여
### 바이어 상담 ·투자유치 설명회도

인공지능(AI)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산업 전시회인 'AI TECH+'가 오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AI TECH+'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한국인공지능협회,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가 주관하고 전남대학교, GIST(광주과학기술원), 조선대학교, 호남대학교가 파트너로 함께 한다.

이번 전시회에선 AI반도체, 컴퓨팅, 로봇, 드론, 메타버스, 스마트그리드, 지구환경 데이터 기반 솔루션, 머신러닝 등 AI기반 융합산업 및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AI기반 기술과 융합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조망하는 AI TECH+는 글로벌 AI 콘퍼런스인 'AICON(artificial intelligence congress)'과 동시 개최될 예정이어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지역 대표 산업전시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광주시는 대한민국 AI 중심도시로 선정돼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등 AI 생태계 거점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올 연말까지 AI 데이터센터를 준공하고, 한국판 뉴딜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데이터댐 기능 강화 사업에도 돌입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혁신거점 지역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다.

이번 글로벌 AI 기술 전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은 비즈매칭, 투자유치 IR 등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31일까지 조기신청 한 기업에게는 20% (면적비 부분)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전시회 참가신청은 7월 29일까지 홈페이지(www.aitech-plus.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상묵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은 "국내 최대 규모 인공지능산업 전시회인 'AI TECH+'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최신 AI기반 기술과 융합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경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중대재해 예방 현장 안전점검** 광주도시철도공사 윤진보 사장 등 임직원들이 최근 광주시 동구 용산차량기지를 방문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CEO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온라인경매 시스템 도입

광주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 ㈜호남청과에서 농산물 온라인경매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 27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산물 온라인경매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비대면 경매 방식으로, ㈜호남청과 홈페이지(https://khonam.co.kr)에서 중도매인, 출하자 등이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경매 시스템은 2019년 서울 가락도매시장 서울청과(주)와 동화청과(주)에서 최초로 도입했으며, 지방도매시장 중에선 ㈜호남청과가 최초 도입했다.

㈜호남청과는 우선 토마토, 방울토마토, 버섯, 감자 등 4개 품목을 시범 실시하고, 운영이 안정되면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 검사 강화

### 시 보건환경연구원 라돈 검사 추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등으로 외부활동이 늘어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약수터 환경 조성을 위해 먹는물 공동시설 7곳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이다. 광주시는 산장광장, 청품쉼터, 용진, 구 증심사 입구, 너덜겅 등 7곳을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 관리법에서 연 4회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8회를 추가해 연 12회를 검사할 계획이다.

분석 항목은 ▲여시니아균 등 미생물 4개 항목 ▲납 등 건강상 유해영향무기물질 12개 항목 ▲페놀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 17개 항목 ▲경도 등 심미적 영향물질 14개 항목 ▲자연방사성물질 라돈 등 총 48개이며, 검사결과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공표해 시민과 공유한다. 수질검사 항목 중 여시니아균은 야생동물의 배설물에 의해 오염돼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며, 라돈은 토양이나 콘크리트 등의 건축자재 중에 존재하는 자연방사성 물질로 폐암의 원인 중 하나다.

또 검사 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주변 오염원 제거 및 소독 등 시설개선 후 재검사를 실시, 적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숙경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은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은 기온이나 주변 환경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내판에 게시된 수질검사 성적서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 자원순환마을 신규 3곳·2단계 2곳 선정

### 광주시 주민 교육·거점공간 지원

광주시는 "'2022년 광주형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공모를 통해 자연순환마을 5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정된 5개 마을 중 동구 소태동 백조아파트(한울타리), 남구 진월동 고운하이플러스 1차(나나원정대), 북구 양산동 인양유치원 등 3개 마을이 신규 1단계 마을로 지정됐으며, 서구 치평동주민자치회와 광산구 우산동 두루두루마을관리소는 지난해 1단계에 이어 2단계 지정 마을로 선정됐다.

1단계 마을은 주민 역량강화 및 인식개선(학습, 견학, 캠페인), 마을 쓰레기 모니터링 등을, 2단계 마을은 1단계 마을 활동, 자원순환 거점공간 운영, 자원순환활동 확산 모델 정립 등을 한다.

광주시와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개 마을을 선정·지원했다.

주요 사업은 마을공동체 쓰레기 모니터링, 주민 자원순환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과 체험, 쓰레기 줄이기·재사용·재활용 실천, 자원순환 거점공간 운영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중증장애인 소득활동 종합조사 참여하세요

### 일자리·직업훈련서비스 제공

광주시는 "광주 거주 미취업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소득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공적 이전소득이나 그 외 근로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의 소득활동 여건을 심층 분석하고, 지역사회 내 일자리·훈련 기반 확대 등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광주에 거주 중인 중증장애인 88명이며, 참여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은 6월 30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자치구 장애인복지과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은 접수순서에 따라 소득활동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적합한 민간일자리(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현장 중심 직업훈련 서비스(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을 연계 받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내 직업재활부(02-3433-0660, 0707)에 문의하면 된다.

송숙란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6월까지 시범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며 "새롭게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중증장애인이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자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시, 직장맘·대디 고충해결 상담 지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는 "광주시 직장맘·대디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전문가 상담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직장갑질, 직장생활, 경제, 가족관계 등에 대한 이번 일가정양립지원 상담은 특화분야와 일가정양립전반에 대한 상담으로 나눠 진행한다.

특화분야는 직장갑질상담으로 노동상담과 더불어 예술기법을 통해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는 예술치유상담의 결합하는 상담으로 진행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권리구제 지원도 가능하다.

일가정양립전반 상담은 직장과 가족갈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가들이 상담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광주시 거주 일하는 직장맘·대디로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전액 무료다.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다.

진행 방법 등 문의사항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고, 신청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이번 상담지원 프로그램이 직장인들이 일과 가정에서 겪는 고충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소방, 신고접수 대상 AI 데이터 구축

### 행안부 공모 선정 국비 3억원 확보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행정안전부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사업' 공모에 '광주시 재난위치 대상물 데이터 구축사업' 과제가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119신고자 재난위치 파악을 위해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를 보강·구축하는 내용으로 시행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사업을 통해 현재 119종합상황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119신고접수시스템의 재난위치 검색 정확도가 향상되고, 신고접수 시간도 단축돼 골든타임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민자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성능은 데이터 학습량과 비례한다"면서 "인공지능 기반 119신고접수시스템 기능을 더욱 고도화시켜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